

사탄의 유혹 ♡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 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중 아홉 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 있고,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 있는데
열 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곧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의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 생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두 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훔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욕심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출처 - 세미콜 이야기 / 정명식 (2002/03/14)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